

4:3과 제주도 로컬리티*

—현길언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정 중 현**

요 약

이 글은 현길언과 현기영의 4:3 관련 소설의 분석을 통해 제주도 로컬리티 재현의 두 방식을 검토한 것이다. 현길언은 개인적 체험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문학의 소명으로 내세우며, 유년기 자신이 체험한 무장대에 의한 양민 학살의 원체험을 근거로 4:3을 민족주의, 민중주의의 맥락으로 의미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그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형 문화'와 '주변부성'을 제주도 로컬리티로 규정하는 제주문화론을 4:3 관련 문학 작품 창작에 투사하면서, 작품을 통해 육지에서 도래한 사회주의 등의 이념을 4:3의 원인으로 제기한다. 이에 반해 현기영은 중산간부락의 소개와 방화, 학살에 대한 탐색을 자기 문학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 국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분노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문학적 도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지상에 숲가락 하나》에 이르러 민족문학, 민중문학으로 회수되지 않는 신화적이고 시원적인 공동체로서의 제주도를 재구성하면서 제주도 로컬리티를 중심/주변의 역학의 일부가 아닌 본원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형상화하였다. 현길언과 현기영의 문학을 통해서 로컬리티에 대한 논의와 형상이 늘 '진보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것이 국가(민족)라는 동일자의 중심과 주변의 역학으로 포획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것을 균열내거나 초과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NRF-2007-361-AM0013)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주제어 : 4·3, 제주도 로컬리티, 국가주의, 민족주의, 중심과 주변, 체험과 허구

목차

1. 하나의 원점과 두 갈래 길
2. 현길언: 역사(이데올로기)의 폭력과 체험(개인)의 진실
3. 현기영: 분노, 화해(진혼) 그리고 원향으로의 귀환
4. 결론을 대신하여: 중심/주변의 로컬리티의 정치적 역학의 재고

1. 하나의 원점과 두 갈래 길

1957년 12월 25일날 찍은 제주도 고교생 문학 씨클 〈石座〉 모임의 사진 앞 열에 나란히 앉은 두 소년은 제주도와 4·3을 문학적 주제로 삼아 활동해 온 현길언과 현기영이다. 그들은 유년기에 4·3을 직접 체험했으며¹⁾, 군인/경찰 가족이지만 친족 중에 ‘산사람’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품에서 4·3과 제주가 다루어지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점은 흥미롭다. 4·3이 문학적 원체험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취급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던 이들은 노년에 이른 현재 화해 불가능한 극단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기영은 《순이삼촌》²⁾을 통해 4·3의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공안당국에 의해 고문을 겪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이후 민

1) 현길언은 1940년생, 현기영은 1941년생으로 1948년 4·3 사건 발생 당시 8, 9세의 유년기였다.

2)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비평』 1978년 9월 발표, 《순이삼촌》, 창작과비평사, 1979.

족문학 진영의 중요 작가로 활동해 왔으며, '민족문학 작가 회의'의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기영의 문학은 4·3의 기억과 제주도라는 지역성을 매개로 한 민족문학의 지역적 발현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현길언이 도착한 곳은 정반대의 지점이다.



앞줄 좌 현기영, 右 현길언

현길언은 최근 자신이 주관하는 잡지 『본질과 현상』에 참여정부의 4·3 보고서³⁾에 대한 비판을 기고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⁴⁾ 그 논문의 골자는 자연발생적인 민중의 정당한 저항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한 것으로 4·3을 규정한 참여정부의 4·3사건 보고서를 '국가에 의한 역사의 왜곡'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현길언은 4·3은 남로당에 의한 조직적인 반란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면에는 비록 토벌대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긴 했지만 국가의 진압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무엇이 하나의 사건을 체험한 두 제주 소년들을 한국현대사 해석과 문학적 재현의 양 극단으로 갈라지게 만든 것일까? 두 작가가 집요하게 천착해 온 4·3 관련의 중요 텍스트들을 따라 읽다 보면, 그

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 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위원회의 4·3사건에 대한 정의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536면)으로 규정된다.

4) 현길언, 『과거 청산과 역사만들기-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중심으로, 『본질과 현상』 2013년 여름호.

들이 현재에 이르게 된 문학 내적 논리의 일관성과 함께, 그들이 각기 다르게 구성하고 배치한 제주도 로컬리티⁵⁾가 두 갈래 길의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많은 논자들이 현기영 문학에서 민족문학, 민중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논의해 왔음에도 그의 작품의 기저에는 민족문학의 균질성으로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또다른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 혹은 국가라는 동질성을 전제한 중심-주변의 역학 안에 자리한 '지역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본원적 이질성에 대한 감각이다. 현기영은 《지상에 순가락 하나》를 통해서, 중심-주변의 정치적 역학을 넘어서 자신을 형성한 제주라는 로컬을 세계의 중심이자 원향으로 구성했다. 본문에서 4·3을 다루어 온 그의 문학작품의 변모 과정에 대응하여 이러한 제주도 로컬리티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현길언의 경우에도 그의 4·3에 대한 관점의 핵심에는 유년기의 체험과 더불어 제주도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현길언의 회고에 따르면, 4·3 사건에 대한 그의 원체험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군/경 가족들이 무장대에게 당한 습격을 목격한 데 놓여 있는 듯하다.⁶⁾ 이러한 체험을 반복해서 재현한 그의 작품들은 4·3에

5) 로컬리티는 자명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다. 로컬(리티)을 방법론으로 내세운 부산대학교 인문한국사업단의 정의에 따르면, 로컬은 정체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실천적 행동이 접합하고 있는 공간이며, 내외부적으로 소통 교류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로컬리티 논의는 로컬리티가 인간들의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이고, 매우 유동적이고 중층적이며, 권력적이기도 하면서 가치 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로컬, 로컬리티 개념을 채용하면서 제주도라는 로컬을 기반으로 구성된 제주도의 지역성에 대한 담론적 구성을 로컬리티라는 범주로 명명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6) 현길언, 《껍질과 속살》(나남, 1993)의 〈작가의 말〉,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백년동안, 2014) 등에서 현길언은 무장대에 의한 남원 마을의 습격과 추창에 찢린 부상으로 죽은 할머니 및 자신의 급박했던 체험을 반복해서 슬회한

대한 1980년대 이래의 역사적, 문학적 재조명이 민중에 대한 국가 폭력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개인적 체험 혹은 제주도 로컬리티를 억압하는 허위의 체계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1980년대 그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이데올로기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적 체험들의 복원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별적 체험을 집단적 이데올로기의 기억으로 환원하는 역사 서술 및 문학적 재현에 대해서 일관된 거부의 모습을 보였다. 한 개인의 체험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등, 시대의 이념을 내세운 집단적 요구가 통합적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응시하는 그의 관점의 저변에는 민족주의 담론체제로 회수되지 않는 제주도라는 주변부가 지닌 로컬리티에 대한 강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국가주의로 귀결되는 이른바 한국 사회의 뉴라이트의 경로를 현길언의 4·3 관련 문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초기작 〈껍질과 속살〉을 통해 현길언 문학의 내적 논리의 원형을 추출하고, 장편 《하라산》을 통해 그의 문제의식과 제주도 로컬리티에 대한 관점이 4·3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작용했으며 결국에는 국가주의로 역동일화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다. 물론, 이후 민보단으로 동원된 아버지, 할아버지가 삼촌의 처형 장소에 동참해야 했던 비극을 함께 보고하고 있지만, 그가 강조하는 문학이 옹호해야 할 개인의 체험적 진실의 원형은 이 무장대의 해안부락 습격 체험에 고착되어 있다.

2. 현길언: 역사(이데올로기)의 폭력과 체험(개인)의 진실

〈껍질과 속살〉⁷⁾은 현길언의 문학적 주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의 열기로 가득했던 1980년대의 지평에서 이 소설은 이례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논의를 위해 소설의 경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강근수라는 한 학자가 제주도 해녀들에 관한 역사 연구서 『바다의 사냥꾼』을 출간한다. 그 책은 1937년 식민지하에서 관제 조합에 대항하여 일어난 해녀들의 투쟁을 민족주의 청년단체 ‘信友會’의 감화를 받아 일어난 민족주의적이고 민중적인 봉기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반응을 일으켜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방송국의 해녀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재생산되어 부풀려 진다. 지방 행정 관계자들은 이들 해녀들을 “지역의 전통적인 여성상”⁸⁾으로 현창하며 ‘해녀상’을 건립하여 해녀의 개척정신을 시민 정신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정작 봉기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당시 부산에 살던 여인 송순녀가 강근수와 제주의 지방신문사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적은 편지를 보낸다. 송 여인은 봉기는 ‘자연발생적’이었고, ‘신우회’라는 단체와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족주의적 의식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머구리배가 해적처럼 제주 해녀들의 삶의 영역을 침해하는 데 대한 분노가 그 행동의 원인이었다고 밝힌다. 송 여인은 신문에 자기 편지를 실어 기록을 바로잡으라 요구하지만, 신문사는 송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동상 건축은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화자인 성 기자는 취재를 통해 강근수의 사

7) 현길언, 〈껍질과 속살〉, 『문예중앙』, 1986년 봄호. ; 여기서는 단편집 《껍질과 속살》, 나남, 1993 수록본을 인용함.

8) 현길언, 〈껍질과 속살〉, 《껍질과 속살》, 나남, 1993, 181면.

건 서술이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성 기자는 강근수의 서술이 해녀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년 뒤인 1947년에 『신평』이라는 좌익 계열의 잡지 창간호에 좌파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지식인 이명균이 작성한 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명균은 민족주의-민중주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혁명적 쟁기’로 의미화했다. 송 여인은 이 글 때문에 한 해 뒤에 발생한 4·3 사건 당시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서청 간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 대가로 죽음을 모면하고 풀려난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알려져 시집으로부터 쫓겨난다. 그의 남편은 이후 서청 간부에 항의하러 갔다가 종적을 모르게 되고, 서청 간부의 딸을 임신한 송 여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하여 아버지가 다른 두 남매와 함께 영육의 세월을 살아 왔다. 성 기자는 부산의 송 여인 및 그녀의 딸과 인터뷰하고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전하고 싶어진다. 직장인 신문사에서 송 여인의 편지를 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될 대중적 학술회의에 발표하기로 하고 원고를 준비한다. 그러나 성 기자가 그 진실을 발표했을 때 대중들의 공공연한 적대감에 부딪히게 되며, 그는 결국 혐오감에 휩싸여 회의장을 벗어난다. 소설은 이 학술회의의 8개월 이후를 묘사하며 영웅적인 해녀 기념상 제막식의 거행 장면을 그리는데, 특별 시상식의 대상자인 송 여인이 상을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 결말로 하고 있다.

초창기 현길언 소설이 지니고 있는 미덕은 이처럼 상식화된 이데올로기에 묻혀버린 개인의 체험을 복원하여 그 이데올로기가 지닌 헤게모니성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었다.⁹⁾ 카터 에커트는 이 소설을

9) 중복될 우려가 있어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지역의 선구자로 현창되는 김만호와 공산당으로 죽은 홍목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신열〉(1984) 역시 상식화 집단적 기억 속에서 개인적 진실을 찾아내려는 현길언의 일관된 소설적 관심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해 ‘탈민족주의적’ 한국사 서술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¹⁰⁾ 그의 지적처럼 이 소설은 공동체의 ‘상식’으로 헤게모니화한 민족주의의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인의 체험적 진실을 억압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에커트는 민족주의만을 언급했지만, 이 소설에 드러난 허위로서의 이데올로기의 다른 한 층위는 민중주의와 잇닿아 있다. 서술자는 “애초부터 민족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여성들이었고, 불평등과 부정의 압제적 힘에 대해 비판·저항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해녀들의 투쟁이 재구성되고, “해녀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족정신을 운위하면서, 그것이 곧 제주도민의 본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정신적 산물”¹¹⁾이라 묘사하는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해녀들의 생활세계와 해녀 투쟁의 체험적 진실을 억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민중주의적 시각에 의해 억압되고 주변화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 대했던 한숨과 눈물의 여인들, 추운 겨울 바다에서 꺼렇게 바람맞은 살갓을 드러내고 맨발로 칼날같이 뾰족뾰족 날카로운 현무암 바위 위를 짹싸게 내닫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¹²⁾이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상식화된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껍질’로 표상하고 그것에 의해 가려진 ‘생활세계’와 ‘개인의 진실’을 ‘속살’로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면, 해녀 사건은 민족 이념에 투철한 여인들의 항일 운동도 아니었고, 우국 청년들에게 영향받은 반일저항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여성 해방운동이나,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들의 싸움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생존을 지탱하려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초

10) 카터 에커트, 『해결의 명령을 몰아내며: 탈민족주의적 한국사 서술을 향하여』,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엮음, 도면희 옮김,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11) 현길언, 〈껍질과 속살〉, 《껍질과 속살》, 나남, 1993, 182면.

12) 현길언, 위의 소설, 같은 면.

적인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해녀가 되어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작업을 해 본 사람이나, 해녀로서 자신의 채취물을 제 값을 못 받고 팔아야 하는 분함이나, 자신의 어장을 잠수기선에 빼앗기는 그 절박함을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위하여 사실을 미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어떤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허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녀 정신을 도민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계획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¹³⁾

작가의 복화술사라고 할 주인공 성 기자는 이데올로기의 허위로 포착하지 못하는 개인의 체험적 진실을 제시하며 이데올로기적 허위와 개인적 진실을 ‘껍질과 속살’로 대립시킨다. 이러한 성 기자의 견해는 작가 자신의 견해에 다름 아닌데, 소설집의 서문인 〈작가의 말〉에서 현길언은 ‘구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문학의 소명을 “‘체험의 진실’을 어렵게 주워모으는 일”¹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녀의 삶을 체험해 보지 않은 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성 기자의 말이 암시하듯이, 작가는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경험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이야기꾼’에 의한 사건의 재현을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체험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문학으로 제시하며 둘을 대립시킨다.¹⁵⁾ 소설의 결말에서 대학생 청중과 발표자 성 기자 사이의 논전은 역사발전(진보)라는 감각을 이데올로기적 허위로 이해하

13) 현길언, 위의소설, 200-201면.

14) 현길언, 〈작가의 말〉, 《껍질과 속살》, 나남, 1993, 13면.

15) 현길언은 문학의 허구성을 체험에 기반한 허구와 이야기로 지어낸 허구라는 다소 이분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여러 글에서 그는 4·3을 체험하지 않은 외부자들이 이야기로 지어낸 문학=민족문학/민중문학이라는 도식을 반복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 자신의 체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그 외의 4·3문학을 체험하지 않은 자의 ‘허구’의 이야기로 배제하는 이러한 시각이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여 4·3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현길언의 감각이 개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개인의 삶이나 집단의 삶에서 역사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진실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주는 사회·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역사 발전의 주체자로서 일반 민중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반역사적, 또는 소수 엘리트주의자들의 소아병적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의 발표가 해녀사건의 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의미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상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새로운 역사 발전의 의미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¹⁶⁾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송 여인이 되어보세요. 역사적 발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개인의 삶입니다. 역사를 이념화할 때 개인의 진실은 은폐되기 쉽고, 더하면 개인의 삶 자체를 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념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 그 허구성이 드러나지만, 개인의 진실은 영원히 진실입니다.”¹⁷⁾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의 인식은 1980년대적 민족적 민주주의 역사인식의 전형이다. 역사 발전(진보)라는 감각에 대해 성 기자는 ‘개인의 진실’을 통해 그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비판한다. 이 소설에서 4·3은 전체 서사의 일부로 등장할 뿐이지만, 우리는 이 작품의 구도를 통해 이후 작가가 보여준 4·3 인식의 전개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도식화해 보자면, 송 여인은 4·3 사건과 연루되어 비극적 피해를 입은 체험주체로서의 각각의 제주 주민을 표상하고, 해녀의 생활세계를 민족주의-민중주의의 시각에서 서술한 이명균과 강근수의 글은 4·3에 대한 80년대 이래의 민족문학

16) 현길언, 위의 소설, 201-202면.

17) 현길언, 위의 소설, 202면.

과 참여정부의 4·3보고서에 해당하며, ‘해녀상’은 4·3평화기념관이라는 ‘허위의 모뉴먼트’를 예비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귀착점이 서두에서 언급한 참여정부 4·3보고서에 대한 비판 논문이다.

그렇다면, 4·3 사건과 관련하여 작가 현길언이 밝히고자 하는 ‘속살’은 무엇일까? 현길언에게 4·3은 제주도적인 생활세계와 무관한 육지로부터 도래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조직적인 반란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국가의 통치 행위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었으며 그 희생양은 제주도의 양민이었다. 현길언에게 일어난 어떤 도착(倒錯)은 제주 사람을 공비로 타자화하고 학살한 국가의 폭력은 통치성과 관련된 행위로 간주하며, 그것의 빌미를 제공한 일종의 ‘구타유발자’로서 육지로부터 온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데 역점이 두어진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감각을 강화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무장대의 습격으로 할머니를 잃고, 공포에 직면했던 소년 현길언의 개인적 체험이다.¹⁸⁾

이러한 그의 인식은 야심찬 장편 《한라산》¹⁹⁾에서 보다 심화된다. 이 소설의 서사구조의 틀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남로당의 조직적인 반란으로 4·3을 이해하는 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18) 무장대의 습격에 의한 양민의 희생을 목격한 개인적 체험의 진실을 강조하는 현길언의 주장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토벌대에 의해서 학살된 양민의 살해 장면의 현장을 체험한 저 무수한 개인들의 진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길언은 역사적 사건의 한 체험을 절대화하여 그것의 진실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체험의 진실을 억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듯하다. 현길언의 애초 의도는 4·3을 민중의 저항권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 희생자들을 저항적 주체로 의미화한다면 무장대에게 살해된 또 다른 양민들은 상식화된 집단적 기억에 의해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을 터이다. 그는 4·3의 실상이 정당한 좌파, 부정한 우파라는 양분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 희생된 자들만을 선인으로 의미화하게 되는 80년대적 민중주의의 ‘상식’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한다. 나는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이 역설적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인식으로 귀결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19) 현길언, 《한라산》1,2,3, 문학과지성사, 1995.

그는 소설의 도입에서 해방 직전까지의 제주도의 상황을 그리다가 곧바로 1948년 4·3의 봉기로 넘어가는 서술의 전략을 사용한다. 소설론의 차원에서 이것은 스토리의 시간을 그대로 따라가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플롯적 구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해방 직전에서 해방 후 3년을 건너 뛰고, 4·3 사건의 발발의 장면으로 이동함으로써, 독자들이 4·3 사건의 원인을 질문하며 작품을 읽게 하려는 구조적 장치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설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러한 서술 구조의 틀에서 또 다른 서사의 정치학을 느낄 수 있다. 식민지 말기로부터 바로 4·3으로 넘어온 장면의 첫머리는 “빨치산 테러!”라는 한 마디로 요약되고, 이어서 훈련에 의해 인간성이 파괴된, 서로를 ‘동지’로 부르는 자들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거두절미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청년단원, 면장 등을 살해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들은 우익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노부모와 아내, 어린 아이 등 선량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다. 남로당의 테러로 고향을 하며 열심히 살던 순박한 17세의 지서 급사는 도살된 돼지처럼 끄물려진 시신으로 거리에 널부러져 있다. 이러한 장면들에 이어서 휴머니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신문기자를 통해 경찰측 피해가 제시되며, 급기야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이것이 “제주사회에서 처음 있는 끔찍한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유격대의 잔인성은 공산주의 혁명전사가 되기 위한 사상 교육의 결과”²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의 내러티브 구조는 제주도 4·3 평화기념관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당시 미군촬영반이 제작한 무성영화 〈제주도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의 구조를 그대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분 남짓의 이 짧은 동영상은 제주도 상공의 항공기에서 섬을 촬영하며 시작하는 데 마을에 불길이 솟은 장면에

20) 현길연, 《한라산》1권, 문학과지성사, 1995, 37면.

뒤이어, 트럭을 탄 무장경찰이 출동하여 마을에 진입한다. 이어서 유방을 드러내고 참혹하게 살해된 여성 시신을 연달아 보여주고 이를 침통하게 바라보는 미군과 관을 깔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병치시킨다.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였다고 주민들이 시연해 보인 후 경찰들이 노인과 여인, 아이들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²¹⁾ 이러한 시간의 순차에 따른 이 짧은 홍보영화와 《한라산》의 서사구조는 4·3의 원인이 무장대의 무고한 주민 살해에 있고, 그러한 테러와 반란에 대해 국가가 대응하여 정당한 진압으로 폭도를 사살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4·3이 일어나게 되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제주도의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와 서북청년단 및 육지 출신 경찰의 고문과 악행 등은 생략하고,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3·1 기념식 등에서의 유혈사태는 남로당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암시한다. 또한, 《한라산》은 4·3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경찰 등이 자행한, 현길언이 중립적으로 언급하고자 했던 토벌대가 행한 ‘비인권적인 행위’들은 그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현길언이 개인의 체험을 절대화하여 냉전의 진영론을 재연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

21) 제주도 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돌아가고 있는 무성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Cameraman 이름은 SHAYDAK로 명기되어 있다.

22) 현길언은 물론이거니와 뒤에서 살펴볼 현기영의 초기 소설까지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지닌 자는 살해되어도 상관없는가? 가령,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해서 이슈가 되었던 영화 〈변호인〉들에서는 부림사건 당사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님에도 그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다는 항변을 무의식적인 내러티브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고문하거나 학살해도 되는 것일까? 197-80년대의 독재정권과 검열 체계를 생각해 보면 현기영이나 현길언의 문학이 이념과 무관하게 학살된 양민을 그리게 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사회주의자는 학살되어도 상관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숙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렇지만, 여기서는 이 글의 중요한 관심인 제주도의 로컬리티에 대한 인식이 그의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며, 또한 그 인식이 그의 국가주의로의 귀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껍질과 속살〉에서 송 여인의 삶의 진실을 억압하는 ‘껍질’이 ‘육지(물)’와 연관된다는 점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송 여인의 단란한 삶을 파괴한 것은 ‘바다의 풍랑’ 등의 제주도의 생활세계가 아니라 서북청년단 등으로 대표되는 물사람들이거나, 육지로부터 도래한 이데올로기이다.

현길언은 『제주문화론』에서 무속본풀이, 고종달 설화 등의 분석을 통해 제주도 로컬리티의 핵심을 ‘주변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현길언에 따르면, 제주와 육지, 중앙정부와 변두리 지역이라는 분리주의적 인식이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의 기저에 존재한다. 제주도의 무속신들은 육지에서 쫓겨온 신들로 제주 사람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처럼 본토로부터 추방된, 격절된 주변성은 충과 효 등 육지 왕조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반지배 이데올로기를 제주도 사람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했고,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실의 적박한 환경에 적응해 사는 ‘생활형 문화’를 싹트게 만들었다는 것이 현길언의 제주문화론의 골자이다. 이를테면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요괴를 없애는 현명한 판관을 다룬 육지의 ‘공안전설’과는 달리 제주도의 ‘김녕리 뱀굴 전설’, ‘광정당 전설’ 등은 육지에서 온 판관 등이 유교적 가치 판단 아래 없애버린 堂神, 혹은 죽인 뱀 등에게서 복수를 당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설화가 제주도 문화가 지닌 반지배 이데올로기성을 증거한다는 것이다.²³⁾ 《한라산》에는 이러한 현길언의 ‘제주문화론’이 투사되어 있다.²⁴⁾ 이

23) 이상의 논의는 현길언의 『제주문화와 제주사람의 의식의 바탕』(『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4) 현길언의 문학은 제주도 설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 자신의 소설의 기반이 제주도 설화임을 언명하고 있다. 그의 문학과 설화가 맺고 있는 전

작품에 등장하는 제주도 토착의 명망가 김상구 家를 비롯한 제주도 엘리트들의 이력이 모두 육지로부터 유배를 온 선조들이 육지의 충/효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생존을 위한 상업, 혹은 농업 등을 통해 치부한 제주도 환경에 적응한 토착 엘리트들로 묘사되는 것은 쫓겨난 민속신 설화의 역사적 변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편 〈김녕사굴 본풀이〉에서 다룬 김녕리 뱀굴 전설, 광정당 전설 등도 《한라산》의 등장인물들에 의해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전설들로 삽입되고 있다.

현길언의 문화론 속에서 제주도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육지와 격절이 주는 고립에 의해 본원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활세계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육지로부터 온 허위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왕조 시대에는 그것이 충과 효라는 형식으로 도래했다면, 4·3 사건의 순간에는 그것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등장한 셈이다. 현길언은 《한라산》을 집필하면서 제주도 토착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육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저항적인 정신(주변성)과 육지로부터 온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를 구분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 소설에서 김상구, 조탁기 등 식민지 시기 일본 유학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활동에도 가담했던 지식인들은 제주도의 생활세계 속의 인물로 그들의 사회주의적 사상도 육지로부터 도래한 본격적인 사회주의와는 구분되는 토착적 이상주의로 묘사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소설은 대구 사건 때 총파업을 지시한 중앙당의 노선을 따르지 않은 제주도의 엘리트들, 입법의원 선거의 보이콧 노선을 지시하기 위한 중앙당 오르그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인민위원회 출신 대의원을 선출한 제주도의 독자적인 양상을 그린다. 이러한 독자성은 그가 제주

제적인 관계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31집, 2006.12를 참조할 것.

문화론 속에서 구성한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생활세계의 실제적 성격의 발로로 암시되는 듯하다. 이처럼, 그는 《한라산》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제주도의 지식인들을 제주도의 로컬리티가 습합된, 육지의 비인간적인 허위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어떤 존재들로 구성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도래한 비제주도적인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사회주의를 매개하는 인물이 필요했다. 현길언은 이 소설에서 그러한 비제주도적인 육지의 이데올로기와 매개, 봉기를 위한 남로당 차원의 음험하고 조직적인 유혈사태 유발의 배후로 '최인택'을 내세우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길언은 4·3 사건이 남로당의 의도된 전략으로 미군정과 경찰력이 제주도민을 탄압하도록 유도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해한다. 미군정의 경찰력이 시위에 대해서 유혈진압할 것을 걱정하는 김상구 등에게 최인택이 오히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도민들을 각성하게 하리라는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작가는 남로당의 의도된 사건 유발이라는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고 있다.²⁵⁾ 최인택은 제주도 내의 여론을 주도하는 교원동맹의 실질적인 주모자로 그려지고 제주도 사태를 주도하는 숨은 배후로 암시된다. 학병을 탈출하여 만주에 있는 조선독립동맹의 집중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거쳐 제주도로 돌아온 최인택의 이력은 현길언의 '제주문화론'과 결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3을 육지적인

25) 최인택을 매개로 한 4·3 유발론은 『섬의 반란』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남로당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대중의 지력을 응집하여 투쟁력을 강화하였다. 표면상으로는 발포 사건으로 야기된 도민의 순수한 저항이 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불상사가 아니었더라도 남로당은 3.1절을 계기로 그들의 정치역량을 발휘하고 세력 확장을 도모하여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의도했다. 그것은 1947년에 들어와서 각 지역 좌익 단체를 조직하고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3.1 사건과 3.10파업은 4·3사건의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3.1사건은 단순한 기념행사에 따른 불상사에 그치지 않고 좌익이 정치세력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현길언, 『섬의 반란』, 32면)

이데올로기와 제주도적 로컬리티의 분리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육지적 이데올로기의 숙주’가 최인택인 셈이다. 만주에서 돌아온 그를 서울의 하숙집에서 하숙집 딸의 순정을 유린하고 제주도로 오는 비도덕적인 인물로 그리는 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비도덕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인 듯하다.

그런데 현길언은 《한라산》을 집필하면서 어떤 곤혹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남로당 중앙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반란으로 4·3을 구성하기에는 그에 참여한 제주도 지역 엘리트 및 주민들의 이른바 자생적 ‘주변성’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자연발생적인 저항운동으로 의미화해서는 지금까지 고수한 자신의 개인적 진실과도 배치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은 이 소설의 인물들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자생적 사상성, 제주도적 주변성에 기반을 둔 토착적 이상주의의 경향과 남로당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시키기 어려웠던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육지적 이데올로기의 숙주처럼 암시되는 최인택의 형상과 토착적 지식인들의 면모는 사실 변별되지 않고 서술자에 의해서 암시되고 설명될 뿐이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썩어지기 어려운 소설이었다. 4·3이 발발한 이후의 서사는 현기영의 소설과 영화 〈지슬〉이 보여주었던 소개(疏開)의 방화와 학살에 의한 5만여의 주검들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피하는 방식은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무장대의 도발과 테러에 의해 발생했다는 원인만을 서사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4년 현길언은 『섬의 반란』에서 참여정부의 보고서를 비판하며, “보고서는 이 반란이 중앙당의 지시없이 남로당 제주도당 자체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4·3 사건에 ‘민족적 자주적 사회적 도민 저항 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건을 단순화함으로 제주의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도민의 정의로운 ‘저항적 운동’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²⁶⁾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라산》 등에서 지속되고 있던 육지로부터 온 이데올로기, 남로당의 지시라는 차원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식에서 그나마 문학 작품 속에 남아 있던 제주문화론에 기반을 둔 주변성이라는 제주도 로컬리티는 휘발되어 버린다. 제주도의 로컬리티가 휘발된 지점이 어디인가를 『섬의 반란』의 작가 서문은 잘 보여준다. 머리말에서 그는 4·3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진압을 명령받은 여순 11연대의 반란과 그 반란에 의한 숙군(肅軍)으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망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타자로 하는 순정한 국가로 구성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여기서 4·3의 의미를 찾는다. 현길언은 4·3은 비극적이지만, 대한민국을 설립하고 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건이었다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현길언은 제주문화론을 통해서 제주도의 문화를 육지와 다른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구성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다 더 강한 육지의 국가성으로 회수되어 버렸다. 사실 이러한 중심으로 특수성을 회수하는 인식은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도록 제주도의 지맥을 끊어 놓는 ‘고종달 설화’를 분석하면서, “제주의 역사는 제주 밖의 상황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 데에서부터 감지된다.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제시하면서도 그것이 보다 큰 외부적 힘에 의해 결정되고 복속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적 체념이 그의 제주문화론에는 내재해 있다. 현길언은 제주의 로컬리티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비극적 형태로나마 기여하고, 그 국가의 균질적인 국민문화의 일부로 수렴되는 것을 운명으로 수락하고 있다. 육지라는 동일자, 민족이라는 동일자를 거부하는 자리에 제주와 개인적 체험을 두었던 그의 문학적 문제의식이 거꾸로 국가라는 동일자로 수렴되는 역동일화의 결과로 귀착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26) 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백년동안, 2014, 46면.

3. 현기영: 분노, 화해(진혼) 그리고 원향으로의 귀환

현기영은 4·3 사건의 문학화와 제주도 로컬리티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40여년의 작가 생활 중 4·3과 관련한 작품은 전체의 대략 1/3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작가를 4·3을 벗어나서 설명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0년 전 학살의 현장이었던 자신의 음팡발을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순이삼촌’처럼, 작가 현기영의 문학은 유년기 체험인 4·3과 제주도를 원점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순이삼촌이 그날의 공포와 상처를 비극적으로 끌어안은 채 죽음에 다다른 것에 비해, 작가 현기영은 4·3의 공포와 분노를 넘어 제주도라는 원형적 시공간을 구성하기에 이르른 듯하다. 4·3을 서사 시간으로 하는 그의 첫작품 〈아버지〉로부터 《지상에 순가락 하나》에 이르는 문학의 도정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문학적 주제의 변천에 조응하는 제주도 로컬리티의 변화상을 추적해 보자.

알다시피, 4·3을 그리는 그의 문학의 원형은 이른바 “소개(疏開) 불길의 원체험”²⁷⁾에 있다. 〈순이삼촌〉을 통한 제주 민간인의 학살에 대한 고발 이래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이야기〉, 〈아스팔트〉, 《지상에 순가락 하나》에 이르기까지 현기영 문학의 분노어린 질문의 핵심은 소개(疏開)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중산간 부락의 민간인 학살에 놓여 있다. 현기영은 지식인 화자 문중호의 입을 빌어 4·3 사건에서 “통틀어 이백도 안 되는 무장폭도를 진압한다고 온 섬을 불지르다니, 그야말로 모기를 향해 칼을 빼어 든 격이었다. 그래서 이백을 훨씬 넘어 5만이 죽었다”²⁸⁾고 고발한다. 현기영은 이

27) 홍용희, 「재앙과 원한의 불 또는 제주도의 땅울림」, 『작가세계』 36호, 1998. 2. 18면.

28) 현기영, 〈해룡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5만의 주검이 ‘산사람’과 ‘토벌대’의 사이에 낀 무고한 양민의 죽음이
며,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중산간 부락의 소개 작전 중에 발생한 것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²⁹⁾ 그의 첫 단편집의 수록작 〈순이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이야기〉 등은 이러한 중산간부락의 양민
들을 육지로부터 온 서북청년단과 군경을 주축으로 한 토벌대가 어
떻게 학살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
육지로부터 온 경찰 ‘까마귀 오’가 히노마루(일장기)에 덧칠해 만들
어진 태극기가 펄럭이는 충대를 메고 일본 경찰의 사벨로 소개민들
을 핍박하는 장면이라든가,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의 끄나풀이었다가
토벌군의 정보원으로 변신한 〈해룡이야기〉의 ‘구름보’ 등의 설정을
통해서 현기영은 청산되지 못한 식민주의의 유산과 물에서 온 폭력
이 결합한 가해자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첫 작품집이 4·3사건에서 소개의 ‘방앗불(방화)’과
더불어 학살된 양민들의 실상에 대한 문학적 고발이었다면, 이어지
는 〈길〉, 〈아스팔트〉 등은 그러한 분노를 넘어서 진혼과 화해를 모
색하는 단계를 잘 보여준다. 〈길〉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토벌대원
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의 상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설이다.
4·3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학하며 중등학교 교사가
된 ‘나’는 아끼는 제자 박휘진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끌고 간
토벌대원임을 알게 된다. 이미 가난과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약한
자로 바뀐 춘보 노인을 찾아가는 와중에 이들의 사연이 독자에게 제
시된다. 박춘보는 4·3의 와중에 피신하다가 토벌대에 붙잡혀 ‘가족
을 저당잡히고’ 귀순 형식을 밟은 후 즉시 토벌대의 안내인이 된 인
물이다. 4·3 사건 당시 어린 나는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다가 박춘

1995, 178면.

29) 영화 〈지슬〉의 서사는 현기영이 몸을 뒤채며 고발해 왔던 제주도 4·3에서의 양
민 학살의 문제의식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가 동리 주민 하나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다. 박춘보에게 끌려가던 청년은 자신의 죽음을 집에 전해 달라고 소리치르고 아버지는 입막음을 위해 함께 끌려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아버지가 죽은 장소를 알아내어 떠도는 혼백을 수습하려는 나는 박노인을 찾아가면서 그에 대해 일어나는 노여움을 눌러 진정시키며 그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의 용서의 결심은 “가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발광케 만든 한 시대”³⁰⁾라는 확장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아스팔트〉도 4·3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주인공 창주는 4·3의 중산간 부락 소개 때 산사람에 끌려가 동굴에서 생명을 부지하다가 본격적인 토벌 작전 때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투 사이에 끼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귀순자로 마을에 정착하게 된 소년이다. 이후 생존을 위해 중학생 창주는 한국전쟁에 자원 입대하고 전쟁이 끝난 후 제주에 돌아온다. 소설은 이러한 창주 모자로 대변되는 선량한 마을 주민들을 죽음의 곤경으로 몰아넣은 육지에서 온 경찰 임주임과 그에 가담했던 구장 강영조의 뼈라 조작 사건 등을 제시하며 4·3의 어처구니없는 주민 살해를 보여준다. 강영조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창주와 주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유언을 남기고자 그 아들을 보내오고, 그러한 강영조를 문상하러 가는 눈 내리는 아스팔트를 보여주며 소설은 마무리되고 있다.

4·3에 대한 이러한 화해와 진혼의 서사들이 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건에 대한 ‘고발’과 정당한 분노의 글쓰기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해룡이야기〉의 서술자 문중호의 각성의 과정은 각별히 주목할 대목이다. 소설은 예의 그 중산간 마을의 소개의 장면에서 시작한다. 소개되어 해안마을로 오는 세거릿길에서 중산간구락의 주민들은 서북청년단의 사주를 받

30) 현기영, 〈길〉,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216면.

은 ‘구름보’의 지명에 의해 ‘동카름길’과 ‘서카름길’로 나뉜다. 해방 후 일본 헌병대 끄나풀인 자신을 징치했던 문중호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은 ‘구름보’는 중호의 어머니에게 죽음의 길인 ‘서카름길’을 가리킨다. 어린 중호 남매는 토벌대 가족인 당숙을 따라 동카름길에 남게 된다. 죽음의 집단학살이 기다리고 있던 서카름길로 간 어머니는 서청 간부의 눈에 들어 살아남고, 1년여 동안 그 간부와 살림을 하게 된다. 서청간부가 육지로 떠난 후, 고아원에 맡겨졌던 문중호를 되찾아 온 어머니는 평생을 물질을 하며 중호 남매를 키우며 홀로 살아왔다. 이제는 성장하여 서울의 중산층이 된 문중호는 생존을 위한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수치감과 반감을 지녔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피해자일 뿐인 어머니에 대한 가당찮은 반감이 사실은 가해자에게 향해야 할 분노가 차단된 데서 생긴 부작용임을 깨닫는다. 그의 인식은 피해자인 섬사람들이 5만 여명이 죽은 비극을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일종의 공포에 기인한 것이라는 깨달음에 다다른다. 제주의 해변을 수시로 침범해 섬 여인을 약탈 겁간 살인했던 왜구가 전설에서 해룡으로 묘사되었던 것처럼, 4·3의 피해자들에게도 천재지변과 같은 막강한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증오와 분노가 ‘겁(공포)’에 의해 차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현기영은 억압되었던 4·3에 대한 고발과 정당한 분노를 언어화함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갈 수 있었으며³¹⁾,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용서 혹은 화해의 서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기영이 구성하는 제주도의 로컬리티도 조금씩 변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문중호의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에 ‘제주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31) 그에게 말더듬이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말더듬을 그는 술과 소설로 치유할 수 있었음을 회고하거나, 이것은 어쩌면 제주도민의 4·3의 집단적 트라우마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호는 고향의 모든 것을 미워했다. 측간에서 똥 먹고 사는 도새기(돼지)가 싫고, 한겨울에도 반나체로 잠수질해야 하는 여편네들이 싫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하는 속담이 싫고, 육지 사람이 통 알아 들을 수 없는 고향 사투리가 싫고, 석다(石多)도, 풍다(風多)도 싫고, 30년 전 그 난리로 흩어명이 많은 여다(女多)도 싫고, 술한 부락들이 불타 잣더미가 되고 곳곳에 까마귀 파먹은 폐송장이 늘비하게 널려 있던 고향 특유의 난리가 싫고, 그 불행이 그의 가슴속에 못 파놓은 깊은 우울증이 싫었다. 걸핏하면 버릇처럼 꺼질 듯한 숨을 내쉬는 어머니도 싫었다. 육지 중앙정부가 돌보지 않던 머나먼 벽지, 귀향을 떠난 적객(謫客)들이 수륙 이천 리를 가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던 유배지. 목민(牧民)에는 뜻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국마(國馬)를 살찌우는 목마(牧馬)에만 신경썼던 역대 육지 목사(牧使)들. 가뭄이 들어 목장의 초지(草地)가 마르면 지체없이 말을 보리밭으로 몰아 백성의 일 년 양식을 먹여치우게 하던 마정(馬政). 백성을 위한 행정은 없고 말을 위한 행정만이 있던 천더기의 땅. 저주받은 땅. 천형(天刑)의 땅을 버리고 싶었다. 찌든 가난과 심한 우울증밖에는 가르쳐 준 것이 없는 고향, 그것은 비상(飛翔)하려는 그의 두 발을 잡아 끌어당기는 깊은 함정이었다. 그 섬 사람이 아니고 싶었다.³²⁾

비극과 가난 그리고 치욕의 땅이 문중호가 구성하고 있는 제주도의 로컬리티이다. 서울 여자와 결혼하여 서울말을 쓰며 본적을 버린 채, 육지의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문중호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과 정면으로 대면함으로써 그러한 허위와 ‘표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한다. 그 결심의 첫 번째 실행이 자신의 고향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고향말의 복원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현기영은 4·3을 고발하는 초기 이래, 대부분의 작품에서

32) 현기영, <해룡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186면.

제주도의 풍경을 역사적 사실의 보조수단으로 참혹하게 그려왔다. 인용한 증호의 독백처럼 제주도의 풍경은 주변부의 비극적 역사의 증거들이었으며, 그 전설과 자연 조차 비극적 역사의 은유들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초기 작품의 고발과 정당한 분노의 단계를 지나 화해와 진혼을 거치면서, 그의 소설은 점차 제주도라는 공간을 국가의 폭력과 자본주의적 개발에 의해 붕괴된 삶과 가치를 치유하는 본원적 공동체로 되살려 간다. 4·3이라는 비극과 자본주의의 물질적 가치에 의해 붕괴된 제주도라는 로컬리티와 그것의 회복의 과제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한 장면을 우리는 단편 〈아스팔트〉에서 예감할 수 있다.

이 눈송이들은 필경 사자들의 혼령이리라. 두런두런 뭐라고 저회거리기 속삭이는 소리. 산야 여기저기 풍우에 곱게 덮인 흰 백골과 작은 고무신들……그러나 눈송이들은 아스팔트를 뚫지도 못하고 덮어 싸지도 못한다. 눈송이들은 다만 견고한 아스팔트 위에 부딪혀 허망하게 바스러지고 녹아 버릴 뿐이다. 아스팔트는 물새 틈도 없이 치밀하다. 36년 전의 애달픈 과거를 깔아 봉해 버린 아스팔트, 관문인 공항에서 시작하여 비극의 산야를 종횡으로 질주하는 아스팔트의 관광도로……³³⁾

죽음을 앞두고 참회하려는 4·3 가해자 강영조의 임종을 찾아가는 서술자 창주가 내리는 눈송이 속에서 듣는 것은 사자들의 속삭임이다. 여기서 ‘아스팔트’라는 상징은 흥미롭다. 학살된 망자들이 묻힌 곳에 아스팔트로 덮인 공항을 짓고 그곳을 관문으로 삼아 아스팔트 도로로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된다. 제주도의 아스팔트 길들은 과거와는 무관한 제주도의 엑조티즘을 소비하려는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자본의 혈관이다. 현기영은 이제 4·3과 자본의 물질주의라는 이

33) 현기영, 〈아스팔트〉,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254면.

중의 아스팔트에 의해 붕괴되고 봉인되어 버린 제주도를, 글쓰기를 통해 본원적인 공동체로 복원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로 《지상에 손가락 하나》를 만나게 된다. ‘땃줄을 묻은 함박이굴 마을’의 유년의 기억을 다시 사는 소설이라고 정의하는 서술자의 언급처럼, 이 작품은 작가의 성장의 궤적을 다루는 자전적 성장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 소년의 존재의 시원이 “함박이굴”이라면, 다시 소년을 포함한 섬 혈족들 전체의 근원은 육지와는 다른 독자적이고 이질적인 시원적 공간인 “벼락구름”으로 제시된다. 〈아스팔트〉의 토벌대 대원이 산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을 향해 “안심하라, 섬백성도 같은 단군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미워하겠는가”³⁴⁾라고 연설하는 대목에 견주어 본다면, 현기영의 이러한 독자적 혈족의 구성은 이른바 육지인들에 의해 ‘섬것들’로 타자화된 섬 공동체를 독립적인 우주로 세워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육지와는 절연된 독자적 세계로 표상되는 이 세계는 폭력적 근대와 대척적인 신화적 공동체이다. 이 세계에서는 “불”도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다. “재 속에 묻어둔 불씨로 아궁이불을 일구는 것은 조상 전래의 방식”³⁵⁾이며 “재 속의 불씨, 그 불멸의 씨앗”은 “내 가랑이 사이에 있는 불씨”로서 시원으로부터 이어지는 혈족을 가능케하는 불씨이기도 하다. 제주도 삼성혈 전설이 말해주듯, 이들 “땅에서 솟아나”³⁶⁾ 대지라는 또 다른 어머니 품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는 쥐를 키우는 바지런한 친할머니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적 공동체이다. 집집마다 따리를 들고 있는 신화적 공동체의 영물인 엽구렁이가 숨쉬는 이 세계는 그러나

34) 현기영, 위의 소설, 242면.

35)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실천문화사, 1999, 296면.

36) 현기영, 위의 소설, 133면.

물리력을 독점한 국가의 폭력에 의해 붕괴된다. “그 시절의 굶주림은 굶주림이 그 4·3사건의 재앙불에 타 죽은 때문”³⁷⁾이라는 서술자의 인식은 그 사라진 세계에 대한 애도와 함께 그 세계를 붕괴시킨 폭력에 대한 분노가 묻어 있다. 이 소설은 이 신화의 세계가 붕괴하는 것을 목격한 소년이 그 폐허 위에서 그 붕괴된 신화적 공동체의 흔적을 모아들이는 작업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어떠한가. 표피적으로 보자면 이 소설의 4·3에 대한 원인과 사건에 대한 인식은 참여정부의 사건보고서의 인식과 동체의 것처럼 보인다. 소설에서는 1948년 3월 1일 읍내에 2만 군중이 모인 대시위가 열리는데, 이것은 극한 상황에 몰린 민생의 피맺힌 절규로 언급된다. 미군정은 슬픔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집회에 충격을 가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총파업이 결행되었으며 이를 진압하는 대검거가 이루어진다. 이때 서북청년단 및 육지의 경찰대가 입도하여 2명의 고문치사자가 발생한다. 이어지는 보리공출 등의 수탈이 민중의 저항을 촉발했다는 것이 소설이 인식하는 4·3의 원인이다. 현기영은 육지인들의 폭력을 “호열자”로 묘사한다. 요컨대, 4·3 사건에 대한 현기영의 인식은 미군정의 실책과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먼저 있었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반발 속에서 5.10 단정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기영의 역사인식 속에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하는 것은 4·3이 남로당 혹은 공산당, 혹은 북한 등의 외부와 연계된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진영론적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현기영은 4·3을 앞서 구성한 신화적 공동체로서의 제주도 내부의 저항적 전통으로 맥락화한다.

“그 고장의 신화에는 비범한 능력으로 일어나 관에 맞서다가

37) 현기영, 위의 소설, 145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장사, 장수들이 여럿 등장한다. 신화의 정신은 때때로 현실에 구현되어 관의 침학으로 도탄에 빠진 섬 백성을 구하려고 펼쳐 일어난 불퇴전의 사나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장두라고 불렀다. 민중을 이끌어 주성(州城)을 함락하고 권부를 압박하여 기어이 민생의 요구를 관철시킨 연후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던 그들, 그것은 제 한 목숨 바쳐 만인을 구하고자 한 살신성인의 정신이었다.”³⁸⁾

4·3은 설화적 세계인 제주도만의 독특한 저항의 문화와 결부된다. “카키색 허름한 일군복 차림의 초라한 모습”의 이덕구의 주검은 남로당원이 아닌 공동체 최후의 ‘장두’의 죽음으로 응시되며, 누군가 앞가슴 주머니에 일부러 꽂아놓은 숟가락 하나에서 ‘한목숨 바쳐 만인을 구하고자 한’ 순교자의 숙명을 읽어낸다. 순교자인 장두가 구원하고자 했던 먹고 배설해야하는 지상의 백성들의 숙명을 상징하는 숟가락 하나, 그것이 현기영이 묘사하고자 했던 4·3의 역사적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술자는 “그날의 십자가와 함께 순교의 마지막 잔영만을 남긴 채 신화는 끝이 났다. 민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나고 장두를 앞세워 관권의 불의에 저항하던 섬 공동체의 오랜 전통, 그 신화의 세계는 그날로 영영 막을 내리고 말았다”³⁹⁾고 적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현기영이 4·3의 이러한 민중적 저항이 육지의 다양한 민란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소설의 서술자가 작품 전체에서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제주를 남한의 한 지역적 공간이 아니라, 육지와 절연되어 있는 하나의 우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현기영 작품의 기저에 육지에서 발생한 민중적 저항과는 다른 4·3만

38) 현기영, 위의 소설, 82-83면.

39) 현기영, 위의 소설, 83면.

이 지닌 제노사이드적인 성격에 대한 강한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군정은 제주섬을 “red island”로 규정했으며, 당시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이자 ‘토민’의 섬으로 인식하였다. 현기영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청 및 육지 군경들의 “섬것들”이라는 경멸적인 언술은 당대의 리얼리티일 뿐만 아니라, 현기영이 4·3의 제노사이드적 특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⁴⁰⁾ 요컨대, 4·3은 냉전체제의 이념적 진영 논리 속에 비국민으로 배제되는 ‘빨갱이’와 종족적으로 야만시된 ‘토민’의 정체성이 이중적으로 겹쳐진 제주도민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였다.⁴¹⁾ 이런 의미에서 4·3은 해방 직후에 있었던 대구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등과 관련되어 있고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트라우마를 제주도 사람들에게 남겼다. 현기영의 이 아름다운 소설에는 육지라는 타자와의 단절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현기영은 의식적으로 4·3을 한국사라는 동일자를 구성하는 지역민중사 중의 하나로서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공동체의 경험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원일이 《마당 깊은 집》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 한국전쟁 이후 편모슬하에서의

40) 〈아스팔트〉에서 강영조와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섬출신의 경찰 임주임에게 보이는 창주(혹은 작가)의 어떤 적대감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1) 80년대 대학가에서 많이 읽혔던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돌베개, 1988)는 4·3과 관련한 당시 권부의 주요인물들의 발언을 전한다. “제주놈들은 모조리 죽이시오.”(이승만), “대한민국을 위해 전 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려라.”(조병옥), “제주도의 40만 도민이 없어도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신성모) (1권, 149면)과 장이 섞여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주에서 일어난 일은 제주도 주민 전체의 절멸도 개의치 않는 잔인한 ‘청소’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개연성있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21일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拔本塞源 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고 각료 및 공무원들에게 훈시한다. ‘발본색원’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와 ‘악당’으로 비국민화된 제주도민들에 대한 ‘레드헌트’가 공공연히 발화되고 있다.

성장소설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 소설이 변별되는 이유는 제주도라는 공동체와 그 독자적 로컬리티를 진정한 주인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제주도의 로컬리티는 단순히 소설의 배경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소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독자적 시공간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입원한 고향 선배를 문병 갔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가 입맛을 다시며 찾는 “돌배설국(돼지내장탕)”과도 같은 것이다. 이처럼 현기영은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유년의 기억과 결부되어 있으며, 심지어 기억이 사라져도 남아 있는 본원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그렇다면, 독자적 공동체가 붕괴된 이후의 제주도의 로컬리티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신화의 세계의 붕괴 뒤 무심하게 벌레를 짓이겨 죽이는 ‘똥깅이’, 영물이었던 뱀을 증오에 차 죽이는 ‘웬깅이’ 등의 소년들은 폭력의 후유증을 앓는다. 그렇지만, “불게 녹슨 못들과 숯더미 뿐이 폐허 한가운데를 뚫고 솟아오른 오동나무”⁴²⁾처럼 4·3의 폐허를 뚫고 아이들은 자란다. 아이들이 호흡하는 것은 신화의 흔적들이 숨쉬는 자연과 설화이다. 서술자는 4·3이 붕괴시킨 그 공동체의 인간들이 빨갱이도, 또한 근대 문명의 시선에 의해 야만으로 구획되는 ‘토민’도 아니었으며, 가치있는 근원적인 인간들이었고 존중할만한 문화였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를테면, 들똥의 쾌감과 똥돼지의 풍습, 어머니와 외조부모의 노동요 등은 그 사례일 것이다. 제주도민을 ‘토민’으로 분절시켰던 미군정과 문명, 육지, 국가의 시선에 맞서 현기영은 자신의 세계를 다르게 재현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의 핵심적인 재료가 제주도의 그 푸른 물빛과 결부되어 있는 여러 설화들이다. 서술자의 내면은 “유년 시절, 외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들은 옛이야기들은 이처럼 육지부와 다른 그 고장 특유의 것들”⁴³⁾에 의해 구성된다. 한라공 이

42) 현기영, 위의 소설, 91면.

야기, 설문대 할망의 전설, 날개꺾인 요절 장사의 전설과 결부된 용 두암의 설화 등은 서술자를 형성시킨 본원적인 구성요소로 자리잡는다.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을 정도로 깊고 충충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용연의 신비로운 푸른빛은 이제 나의 내면으로 옴아와 하나의 상징, 하나의 생활지표로 바뀌어 자리잡고 있다”고 성인이 된 서술자는 적고 있다. “용이 잠자고 있는 그 심연의 파란 물빛이 문득 의식의 표면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삭막함을 뚫고 회열이 샘솟는 것을 느낀다. 회색의 도시 공간 속에서 싱싱한 샘물이 솟는 것이다. 고갈되지 않은 생명의 샘, 짙 물속의 단물, 한라산에서 발원한 수맥이 해변에 이르러 마침내 분출하는 용천수, 말라붙은 한내가 그 지하에 혈맥처럼 활기차게 수맥을 품고 있는 것은 얼마나 회한한 일인가”⁴⁴⁾라는 이어지는 진술에서 제주라는 본원의 땅은 도시와 물질문명의 구원처로 등장한다. 육지로 이동했던 신화적 공동체의 후예는 “그 동안의 서울 생활이란 부질없이 허비해버린 세월처럼 여겨진다. 저 바다 앞에 서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실패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드디어 자신이 떠난 곳이 “변경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평선은 내목에 걸린 올라미”⁴⁵⁾로 인식했던 소년은 육지에서의 생을 청산하고 자신의 원초적 공동체로 귀환한다. 그가 회복한 제주는 “생성 최초의 것, 그 섬 고장의 풍토가 만들어놓은 깊은 속의 단단한 씨,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본질적인 것”⁴⁶⁾으로서의 새로운 우주이다. 현기영이 새롭게 구성한 제주라는 신화의 공동체는 4·3이라는 국가의 폭력과 물로부터 들어와 “진혼되지 않은 수만 원혼 사이로 유쾌하게 흘러가는”⁴⁷⁾ ‘호사한 관광객들’에게 물어 들어오는 자본주의의 물신에 대항

43) 현기영, 위의 소설, 340면.

44) 현기영, 위의 소설, 334면.

45) 현기영, 위의 소설, 467면.

46) 현기영, 위의 소설, 468면.

하는 어떤 원향으로 탈바꿈한다. 이처럼 현기영에게 제주도는 국가/민족의 한 지방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자본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시적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중심/주변의 로컬리티의 정치적 역학의 재고

이상으로 4·3과 제주도 로컬리티를 중요한 문학적 주제로 삼아온 현길언과 현기영 두 작가의 작품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현길언은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넘어선 개인적 체험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학의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4·3을 민족-민중주의적 시각으로 의미화하는 1980년대 이래의 한국 사회의 집단적 인식을 이데올로기적 허위로 비판한다. 그 근거는 소년기 자신의 원체험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장대에 의한 (우익) 양민의 학살이라는 역사적 팩트가 존재하는 한, 4·3을 민중적 항쟁으로 묘사하는 것은 허위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현길언은 특히 주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훼손한 것이 육지로부터 이입된 사회주의 ‘이념’이었다고 파악하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의 종착지에서 현길언은 4·3에 대한 민족적-민중주의적 이해를 비판하면서 국가를 이념화하는 역동일화의 도착(倒錯)을 보인다. 주변성으로 제주도를 특수화하고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본원적 인간성의 추구를 강조하면서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그의 무의식의 저편에는 어쩌면 유년기에 체험한 국가의 폭력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회귀하는 것은 이 공포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실존의 확보’였

47) 현기영, 위의 소설, 199면.

다. 그 개인의 실존의 확보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통해 타자화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 순간 그가 육지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혹은 민족주의적 담론화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던 제주도의 로컬리티는 국가의 지방문화로 변주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길언은 현기영이 여러 차례 소설에서 그렸던 한국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원입대하여 생존을 도모하고 과잉된 국가에의 충성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 된 제주청년들의 경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길언의 무의식에서 국가에 대한 공포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면, 현기영 문학의 출발은 그러한 공포에 맞선 분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그 출발에서부터 현기영 문학은 양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문제삼았다. 그의 소설은 그 폭력의 대행자들이 '물'에서 도래한 자들로, 4·3 사건이 이념만이 아니라 종족적 타자성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년의 아름다운 성장소설의 형식을 취한 《지상에 손가락 하나》는 현기영의 문학을 이념적 '민족문학'의 지방적 구현으로 이해하는 시각들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기영의 문학이 민족문학-민중문학의 중요한 자원으로 호명되고, 또한 그 자신 그러한 민족문학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정체성의 무의식에는 이러한 균질적인 민족문학의 동일성을 교란하는 "섬"의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다. 심연의 '물'로 둘러싸인 단절되고 고립된 제주도라는 신화의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현기영은 제주도의 로컬리티와 4·3 관련 문학이 민중문학과 민족문학사의 지방적 발현으로 수렴되는 시각을 균열시키고 있다.

현길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변성을 언급한다고 해서 로컬리티에 대한 논의가 늘 저항적이거나 진보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육지와 다른 특수문화론을 열성껏 구성하여 제주도만의 특성을 해명하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국민문화의 하위 영역

으로 편입되어 버린다. 이러한 국가를 매개로 한 중심-주변의 역학 속에서 주변적 정체성의 원심적 확장의 가능성은 소거된다. 나는 현 기영의 문학에서 감지되는 민족과 국가라는 동일자로의 회수를 거부하는 로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다. 민족문학이라는 이념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가 구성한 제주도라는 로컬리티는 남한 국가와 육지 민족주의의 균질적 이데올로기를 균열시키고 자본주의적 물신을 비판하는 상상의 시적 영토로 현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김동윤, 「현길언 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 31집, 2006. 12.
- 김주연, 「명분주의의 비극-현길언론」, 『문학과사회』 2008년 겨울호 제21권 제 4호 통권 제84호, 2008. 11.
-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돌베개, 1988.
- 박찬식, 「‘4·3’의 公的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6.
- 오별,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2012.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 제주4·3 위원회 백서』, 2008.
- 조명기·장세용, 「제주 4·3사건과 국가의 로컬기억 포섭 과정」, 『역사와 세계』 43, 2013. 6.
- 카터 에커트, 「해겔의 망령을 몰아내며:탈민족주의적 한국사 서술을 향하여」,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엮음, 도면희 옮김,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 현기영, <길>,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 현기영, <아스팔트>,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 현기영, <해룡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72-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비평사, 1979.
-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1999.
- 현길언, 「과거 청산과 역사만들기-‘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중심으로」, 『본질과 현상』 2013년 여름호.
- 현길언, <껍질과 속살>, 《껍질과 속살》, 나남, 1993.
- 현길언, 「제주문화와 제주사람의 의식의 바탕」,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현길언, 《껍질과 속살》, 나남, 1993.
- 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백년동안, 2014, 32, 46면.

현길언, 《한라산》1,2,3, 문학파지성사, 1995.

홍용희, 「재앙과 원한의 불 또는 제주도의 땅울림」, 『작가세계』 36호, 1998.
2, 18면.



<Abstract>

The 4·3 Uprising and the Jejudo Locality
—Focusing on the Works Related to the 4·3
Uprising by Hyeon Gil-eon and Hyeon
Gi-yeong—

Jeong, Jong-Hyun

This writing is what examined two methods in reviving the Jejudo locality through analyzing the novels related to the 4·3 uprising(April 3rd) by Hyeon Gil-eon and Hyeon Gi-yeong. Hyeon Gil-eon puts up seeking the truth of individual experience for the literary explanation and criticizes the attempt of signifying the 4·3 uprising as the context of nationalism and populism based on the original experience of massacre by the militant group that he experienced in childhood. He presents the ideology in socialism and others, which arrived from land through the works, as a cause for the 4·3 uprising while projecting Jejumunhwaron, which prescribes ‘life culture’ and ‘periphery’ free from ideology, as the Jejudo locality. Contrary to this, Hyeon Gi-yeong showed the literary course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owards an assailant after passing through the indignation against the nation's civilian massacre, by having the introduction, arson and massacre in Jungsangan village as the important start of his literature. Following this phase, the Jejudo locality was embodied as what is original and centrifugal, not a part of the dynamics i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while reconstructing Jeju as the mythical and primitive community that is not recovered as the national literature and the popular literature with reaching 《A spoon on the Earth》. Through the literatures by Hyeon Gil-eon and Hyeon Gi-yeong, the discussion and the form on locality could be confirmed to be not what is always 'progressive,' and to inversely have power of breaking or exceeding it even if being captured as well by the dynamics i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of the identity called nation(ethnic group).

Key words: 4·3 uprising(April 3rd), Jeju locality, Statism, Nationalism, Center and Periphery, Experience and fiction

투 고 일 : 2015년 1월 30일 심 사 일 : 2015년 2월 10일-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5년 3월 25일